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http://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http://english.gnpnews.org)  
 일어판 [japan.gnpnews.org](http://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http://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2. 12. 11 ~ 2022. 12. 31 제275호

## Merry Christmas

### ‘크리스마스 주인공은 예수님’

- 성탄절에 ‘예수 복음 만세 운동’ 전국서 열린다
- 그안에진리교회, 12월 한 달간 전도운동 전개

성탄을 맞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예수복음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성탄절 순회선교단 복음사관학교 주관으로 전국 100여 개 이상 지역에서 시작된 예수복음만세 운동이 올해에도 선교단체와 교회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다. 성탄절 전날과 당일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심을 선포하게 된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그안에진리교회(이태희 목사)는 성탄절을 맞아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강남역 11번 출구 강남 스퀘어에서 ‘크리

스마스 인 강남(Christmas in Gangnam)’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5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릴 예정이다.

한편, 그안에진리교회의 ‘밀레도 전도팀’은 12월 한 달 동안 서울의 모든 각 지하철역과 지방 도시의 버스 터미널, 전통시장 등에서 전도 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전도 운동은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매일 1~2시간씩 각자가 정한 장소에서 성탄찬양과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

고 쓰여진 복음피켓으로 복음을 전한다.

또한 예수교회회복운동본부(이하 본부)는 25일 사람들이 모이는 길거리 어디든 자유롭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을 선포하는 2022 예수복음만세 운동을 주관하기로 했다.

본부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포스터를 들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를 외치거나 찬양을 부르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이상과 같은 방법이 어려운 분은 포스터를 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길거리에서 있거나 가게/사무실/차량 등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본부는 신청자에 한해 소량으로 포스터를 발송할 계획이다. 대량으로 필요한 교회 등은 제공되는 파일로 자체 출력해 사용할 수도 있다. 문의: 010-3493-4641 [GN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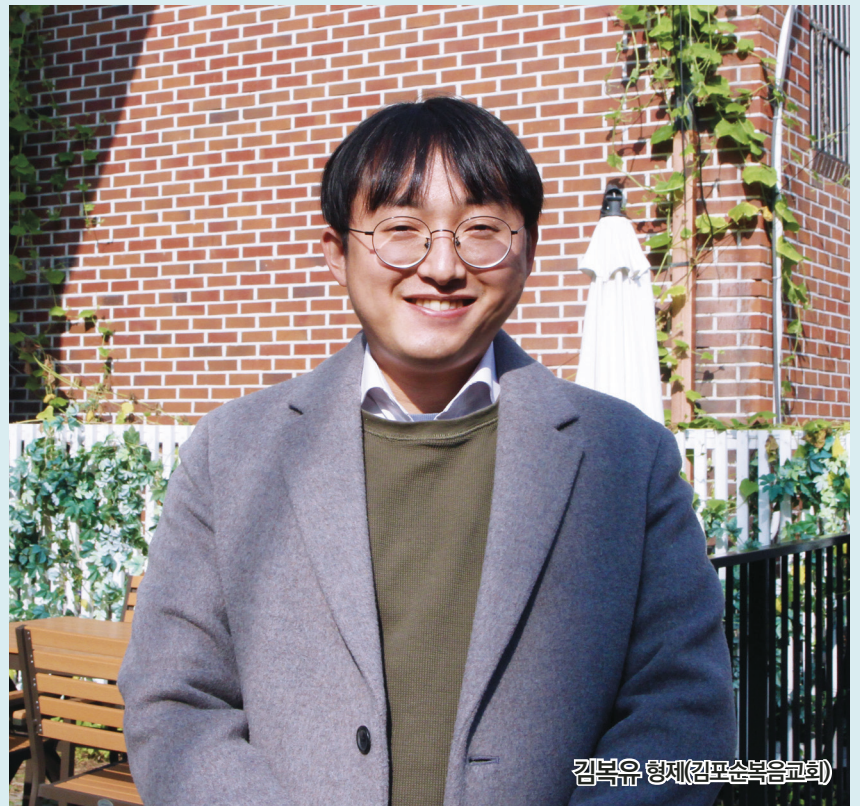


▲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 포스터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 Interview



김복유 형제(김포순복음교회)

### “노래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길 바랍니다”

홍대앞 한 카페에서 김복유 형제를 만났다. 웃음 가득한 얼굴로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나눠주는 그의 이야기가 마치 테이블 위에 놓인 달콤하면서도 씩씩한 커피와 같이 느껴

졌다. 인생의 쓰디쓴 시간을 지나며 슬픈 노래를 불렀던 그가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들어 부드럽고 달콤한 기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그분의 사랑

을 주님의 친구들에게 노래로 소개하고 싶어하는 김복유 형제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 4면에 계속

### 마음의 눈을 밝히사 (59)

### ‘회개’와 ‘정산’, 복음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기독교는 뻔뻔스럽게 “아,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시다.”,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이런 심리 치료나 교리적인 정신 위안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죄에 붙들려 살던 죄인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집이 가난해서 정식 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가짜 학위와 졸업장으로 은행에 취직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분이 복음 앞에 섰습니다. 오랜 세월 열심히 살았지만 이것이 그의 가슴의

멍에요, 이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삶의 모든 기반이 허물어질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는 사실을 속인 채 진실한 장로인 척, 착한 아버지인 척 울고 회개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지점장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법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런 삶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

니다. 우리는 은혜를 마치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값싼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에는 십자가의 공의가 있습니다. 죄가 해결되었으니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범법한 일이 있으면 자수하고, 구속당하게 된다면 구속되어 법의 처벌을 받게 받아야 합니다. 빛이 있으면 갚고,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남의 것을



일러스트=김경선

취한 것이 있다면 도로 내놓아야 합니다. 부정한 관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관계를 숨겨오고 있다면 당장 정리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

들을 정리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GN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 복음의 소리 316전화

-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1670-3160

운영시간 10-22시

상담시간 40분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포토뉴스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 예수



▲ 헤브론원형학교에 설치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장식. © 복음기도신문

거리마다 환한 불빛의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들이 켜졌다. 사람들은 연말연시를 보내며 한 해의 아쉬움을 달래고 새해의 희망과 소망을 꿈꾼다. 그러나 그런 희망과 소망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망

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10~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났다. 자살 사망자 비중을 보면 10대 43.7%, 20대 56.8%, 30대 40.6%에 이른다. 작년 자살 사망자는 1만 3352명으로 전년보다 1.2% 늘었다.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 수가 36.6명이다. 한창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활기찬 인생을 살아야 할 10~30대 청소년, 청년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무엇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은 이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받아야 할 영원한 심판을 아들 예수에게 대신 집행하고 이들을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듣고 믿기만 했더라면...

화려한 트리 불빛 아래로 지나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천 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알게 하소서. 주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소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10~11) [GNPNEWS]

“만화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제4회 만화전도 후원의 밤

“만화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자.”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만화를 활용한 복음 전도에 뛰어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광화문CBMC(한국기독교실업인회), 땅에쓰신글씨, 사단법인 올피플, 앙상블 롱뽀랑 주최로 제4회 만화전도 후원의 밤이 지난 11월 30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옥토교회(담임 원성웅 목사)에서 열렸다.

인도 뭄바이에서 복음만화책자를 선교에 활용하고 있는 원정하 목사(땅에쓰신글씨 총무)는 “만약 200원 들어가는 주사기 한 방으로 치사율 100%의 사람을 고칠 확률이 있다고 한다면, 몇 번이든 환자에게 주사기를 놓지 않겠냐?”며 만화전도책자의 소중함을 말했다. 이날 모임을 위해 최근 귀국한 원 목사는 “선교사들은 만화전도책자를 나누기 위해 쉽지 않은 전도여행 등을 통해 뿌리고 있다.”며 한국교회의 만화전도 사역 동참을 호소했다.

사단법인 올피플의 이사장 김종두 화백은 이런 만화전도의 중요성을 인식, 현재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며 제작된 만화전도책자를 국내외에 보급하고 있다. 올피플이 지금까지 보급한 만화전도책은 전 세계 24개국의 언어로 50만 권에 이른다.

이밖에 이날 후원의 밤에는 올피플과 협력하는 기관이 참여해 만화전도 보급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공감했다.

윤순재 주안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한국 의료선교의 개척자인 이영춘 박사의 만화전기 발간을 계기로 올피플과 협력하게 됐다.”며 “학생의 상당수가 선교사라는 학교 특성을 감안, 올피플과 업무협력을 통해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88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에서 복음전도자가 된 양영자 선교사는 자신의 삶을 만화로 극화한 책자 발간을 통해, 스포츠선교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다음세대 부흥을 소망하며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땅에쓰신글씨'도 올피플과 협력하며, 인도, 일본, 몽골 등 전 세계 선교지에 만화전도책자를 보급, 다음세대 선교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올피플은 이날 전 세계 전도만화 번역, 현지 출판과 복음 콘텐츠 제작을 위해 후원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문의: 010-8976-8631 [GNPNEWS]



▲ 만화전도책자들. 제공: 땅에쓰신글씨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ISIS 모잠비크 지부, “학살 막으려면 이슬람 개종·종교세 내라”

지난달 모잠비크 북부에서 테러단체 알-샤바브가 20여 명의 기독교인을 살해한 데 이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모잠비크(ISM)’ 추정 세력은 학살을 막으려면 이슬람으로 개종하거나 세금을 내라고 요구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지난달 22일 보도했다.

박해받는 모잠비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믿음과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의 위협함을 꺾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속히 악을 멸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이들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카타르, 기독교인의 교회 접근 차단 여전

카타르에서 FIFA 2022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등록된 카타르의 기독교 교회 방문은 금지됐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지난달 21일 전했다. 카타르 복음주의 교회연합(ECAQ) 베다 로블레스 회장은 ‘기독교 박해국’ 카타르가 월드컵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기도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자국민은 물론 월드컵 방문자들에게도 교회의 문을 가로막는 카타르에 통회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를 찌르는 자리에서 속히 떠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한 몸으로 카타르를 세워주십시오.

바교연, ‘2022 개정 교육과정’ 폐기 촉구... “올해 말 통과될 위험”

‘바른교과서개정을위한국민연합(바교연)’이 지난달 25일 국민대회를 열고 최근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폐기를 촉구했다고 기독교일보가 보도했다. 바교연은 교육부가 끝내 행정예고를 강행해 12월 31일까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된다며, “나쁜 교육과정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큰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혼인·가족제도를 해체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교과서에 심어 다음세대를 망치는 교육과정을 파기해주십시오. 이미 공청회를 통해 학부모·교사들이 전한 의견을 무시하는 교육부의 귀를 열어주시고, 이 세대에 아합과 같이 죄악의 길을 여는 행악을 저지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2년 12월 12일 ~ 2022년 12월 31일

12월 12일 ~ 12월 17일 12.12~16(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12.13(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이\*\*)010-5006-5529, 12.14,16(10~12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12.16(10~14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12.16(13~16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12.17(09~21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그 외 7교회 진행중.

12월 19일 ~ 12월 24일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12.19~23(10~17시) ▶강원 속초 / 동명교회(김\*\*)010-7423-4953, 12.20,22~24(20~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12.21(20시)~22(20시) ▶경기 파주 / 갈릴리교회(이\*\*)010-3869-3417, 12.22(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12.23(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12.23(13~16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그 외 11교회 진행중.

12월 26일 ~ 12월 31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12.26~28(10~16시) ▶서울 마포 / 금강야산병원(이\*\*)010-5248-4147, 12.26~30(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12.27, 29~31(20~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12.29(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12.30(10~14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12.30(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그 외 6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완주예배

# “기도24·365 20주년… 통회하는 한 사람의 기도자 세웠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모든 기도자가 1년 365일 매일 한 시간씩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기도24·365가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지난 2003년 120여 명의 기도자로 시작, 현재 2만여 기도자가 참여하고 있는 기도동원 선교단체인 기도24·365본부(이하 기도본부)는 지난달 24일 서울화양교회(최상훈 목사)에서 20주년 완주감사예배를 드렸다. 기도본부는 매년 전 세계 240여 개 나라와 수천여 미전도종족의 부흥을 위한 기도를 마라톤에 비유, 완주를 기념하는 감사예배를 연말에 드려왔다.

그동안 골방에서 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던 기도자들은 지난 2년 여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만나지 못하다 모처럼 갖게 된 이번 집회를 통해 만나 반가움을 나누기도 했다.

‘구원의 횃불로 깃발을 들라’는 구호를 내건 이번 완주감사예배는 기도자의 고뇌, 순종과 기도의 대연합을 위심으로 표현한 헤브론원형학교 학생들의 군무를 시작으로 오후 6시 30분에 시작했다.

기도24·365 공동선언문 발의자로 이날 메시지를 전한 김용의 선교사(오후 4시 기도·로그미션 대표)는 “초창기 기도체인을 정할 때 24시간 중 자원자가 없는 시간대인 오후 4시 기도자를 자원에 사역이나 일정으로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 은혜로 오늘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다.”고 먼저 소회를 밝혔다. 김 선교사는 또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국내 외적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전쟁과 테러와 분쟁으로 기독교인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 현실을 볼 때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지만,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세상 끝날에 유포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며 이때가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주님의 거룩한 몸임을 깨닫게 하셨다.”며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욱 말씀을 지키기 위해



▲ 기도24·365 20주년 2022 완주감사예배 현장. © 복음기도신문



떨며 통회하는 기도자로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 순종하는 기도자가 되자.”고 권면했다. 이날 기도의 간증자로 나선 정보희 선교사(와이낫미션)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권유로 기도를 시작해 습관적인 기도자로 지내다 전도현장에서 무슬림과 만남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의 은혜를 깨닫고 기도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생명의 반응이라는 생각으로 기도에 참여하고 있다.”고 간증했다.

또 경남 통영 인근 두미도에서 낙도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평석 목사(두미교회)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던 2020년 초 기도본부가 주관하는 느헤미야52 기도예에 전교인 10명 중 5명이 참여한 이후, 지금까지 매년 이 기도예에 참여해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목사는 “지금 이 기도모임에는 글을 읽기 힘든 83세의 권사님과 글을 잘 몰라 엄마의 도움으로 기도 정보 설명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 6살의 어린 기도자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밤시간을 쪼개 참여하는 집사님 등이 함께하며 선교완성을 향한 기도의 대열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기도회에는 기도자들이 입장할 때 받은 나라 이름이 적힌 카드를 들고 각자 자기가 받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본부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이름이 적힌 카드를 배부해 600여 명의 참석자들이 동시에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위십과 주제곡 등은 이번 완주감사예배만을 위해 특별히 준비됐다. 이번 주제곡 ‘그 날이 오기까지’를 작곡한 김지산 형제는 “대

회를 준비하시는 선교사님께 대회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기도자를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 주님이 기도하게 하지 않으시면 기도할 수 없다는 것과 기도 자체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열방의 소망’ 위십 안무를 담당한 박계환 선교사(블루피쉬컴퍼니)는 “위십 안무를 위해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을 받았다.”며 “다윗이 여호와 앞에 기쁘게 춤을 췄던 것처럼,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춤 추는 영광을 누리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게 됐다.”고 했다. 위십 의상을 맡은 권숙진 선교사(헤브론원형학교)는 “한 명 한 명이 구원의 횃불을 들고 복음의 광채를 드러내며 서는 것을 생각하며 의상을 디자인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년간 각자의 기도의 골방을 지켰던 기도자들은 이날 오랜만에 만난 기쁨에 손을 맞잡고 부동켜안으며 서로를 반겼다. 이들은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한참 동안을 예배당 입구에 서서 삼삼오오 모여 인사를 나누며 아쉬운 작별을 했다.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 [기도자 간증] “인생의 마무리를 24·365기도로 섬기고 싶어요”

기도의 골방을 묵묵히 지켜온 기도자들의 고백과 이번 완주감사예배의 섬김으로 참여한 이들의 고백을 모았다. <편집자>

### “하나님 마음이 부어져야 기도할 수 있어요”

“24·365기도에 대해 들은 지는 오래됐는데 실제 참여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결코 기도할 수 없다는 걸 매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 제 안에 우크라이나를 향한 기도의 마음에 순종하면서 애통했던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그 나라 가운데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어요.” (김희찬 청년, 어노인팅 교회, 서울)

### “인생의 마무리를 24·365기도로 섬기고 싶어요”

“다시 복음 앞에 선다는 각오로 왔어요. 이전에는 직장에 다니며 기도를 못하고 있을 때도 있었죠. 그렇게 내가 부족하니깐 주님이 함께 계셔주셨지만, 이제는 새롭게 내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2005년부터 여러

훈련학교를 거쳐 24·365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가까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또 주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 죄책감이 있어요.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나이에도 늘 행사가 있으면 오고 싶고, 오면 또 사람들을 만나니까 반가워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인생의 마무리를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24·365기도를 섬기고 싶습니다.” (김덕애 권사, 전주바울교회, 전주)

### “주님이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기도자관리팀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홍보를 하면서 일일이 기도자들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기도자들이 헛웃음을 웃으면서 “미안하다, 기도를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숨어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숨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함께 주님 나라를 꿈꾸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들으면서 저 또한 감격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수준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

하시고 계셨어요. 주님이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정현진 선교사, 기도24·365 기도자관리팀)

### “아이들과 기도할 때 집중시키다 보면, 영적전쟁을 하고 있구나 싶어요”

“기도24·365 시간은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파수하기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의 싸움을 해야 가능해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몇 배 싸움이 더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아이들이 조금 크면서는 같이 기도하는데, 아이들에게 각 나라의 상황과 기도제목을 이해시키면서 집중하는 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구나 싶어요. 그렇지만,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된 은혜예요. 20주년 맞이해서 너무 감격이 되고요. 그 무엇보다 이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같은 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해요. 구원의 횃불을 들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성잔디 선교사, 순회선교단)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 2022 완주감사예배에서 위십을 하고 있는 헤브론원형학교 학생들. © 복음기도신문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 노래로 예수를 소개하는 김복유 형제 (김포순복음교회)

### • 1면에 이어

-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어릴 때는 그저 엄마 따라 교회 다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다 14살 때 찬양하다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감격이 너무 행복해서, 이후에는 찬양 집회를 찾아다니며 예배하고 울며 기도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알게 된 친구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요,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사는 법들을 배웠어요. 그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매우 친한 사이인 것처럼 보여요. 부러웠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삶을 참 닦고 싶었어요. 이런 영향 때문인지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는 삶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 중2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 어떤 어려운 일이었나요?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하루는 동생에게 전화가 와서 이상한 아저씨들이 집을 빼고 있으니 지금 집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후 반지하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집에 가면 항상 TV를 틀어놓곤 했어요. 가난이라는 무거운 공기가 느껴지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당시 집은 그저 잠만 자러 들어갔어요. 그때 갈 곳 없던 저에게 교회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기도실은 항상 열려있어서 언제든지 갈 수 있었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있고, 겨울엔 따뜻했어요. 기도실 가서 자기도 하고, 깨어있을 때는 하나님께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도 많이 물었어요. 기도실에만 있다가 심심해지면 옆에 있는 사역실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곳에는 항상 기타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기타를 치며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 기타를 잘 치셨나보네요.

“아니에요. 사실 제가 작곡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다양한 곡을 기타로 치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기타를 잘 못쳤기 때문에 한 곡을 6개월씩 쳤어요. ‘마지막 날에’라는 곡이 제가 처음 연주할 수 있는 곡이었는데, 6개월 동안 친 다음에는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을 거의 6개월 가까이 쳤어요. 다른 코드는 못치니까요. 그런데 칠 수 있는 곡들만 계속 치니까 언제부터인지 답답하더군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코드 진행 안에서 제 마음을 표현하는 노래들을

부르곤 했어요. 우울할 때는 우울한 노래를 하고, 기쁠 때는 기쁜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곡은 같은 코드 진행이 많아요.”

- 너무 신기한 경우네요. 이렇게 작곡을 시작하신 거군요. 그러면 음악 공부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건 이야기가 긴데요. 먼저 단기 선교를 가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교회 고등부 선생님이 선교사가 되셨는데, 선교사님이 선교지 파송을 준비하면서 선교사역을 갔다 올 때마다 점점 변하는 모습을 봤어요. 성격도 온유해지고, 하나님 말씀만 듣는 그분의 삶이 멋있어 보였어요. 이후 선생님 파송 받아 나가신 선교지에 가서 한동안 지냈어요. 함께 지내는 동안 저를 아들같이 대해주셨죠. 이후 군대에 다녀와서 다시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 또 다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만들 수가 없어서 친구들에게 커피 사주면서 악보를 그려달라고 했어요. 화음도 못 넣고요. 시장·청음 수업을 들었는데, 대략 60개 중에 1개만 맞았어요.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제가 재능이 없는 것 같으니 자퇴를 해야 할까요?’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실력이 없었다면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을 거라면서 격려해주시고 자퇴를 막아 주셨어요. 물론 시장·청음 1점 맞았다는 걸 들으시고는 그 수업은 다음에 듣게 해주셨어요. 1학년 때는 기초가 없어서 고생을 하다가, 2학년 때 좋은 교수님을 만나 악보 보는 법과 악보 쓰는 법을 배웠어요. 제가 악바리가 아니란 걸 주님이 아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학교 오기 전에 제빵일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아마 힘들어서 학교를 감사함으로 다니지 못했을 거예요.”



▲ 사랑하는 아내, 딸과 함께. 제공: 김복유 형제

음악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 덕에 잠시 머물게 됐는데 저에게 음악 한 번 해보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분은 좋은 음악대학을 나와서 인생이 가장 화려할 때, 선교사로 헌신 하셨어요. 그분이 바이올린을 메고 갈 때, 사람들이 그게 뭐냐고 물으면 그 자리에서 악기를 꺼내 연주를 시작하세요. 영혼들에게 음악을 통해 선교하는 게 좋아보여서 저도 음악선교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한국에 돌아와 음악대학에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만 기타치고 노래를 했으니, 악보를 볼 줄도 모르고, 화성학이 뭔지도 몰랐다는 게 문제였어요. 보통은 실용음악과 시험을 보면, 화성학, 시장·청음, 자작곡 보는데, 자작곡만 보는 학교가 있더군요. 제가 만들어 놓은 곡을 냈는데 감사하게도 붙었어요.”

### 선교사님 통해 음악선교에 도전 받아

- 그렇군요. 그런데 공부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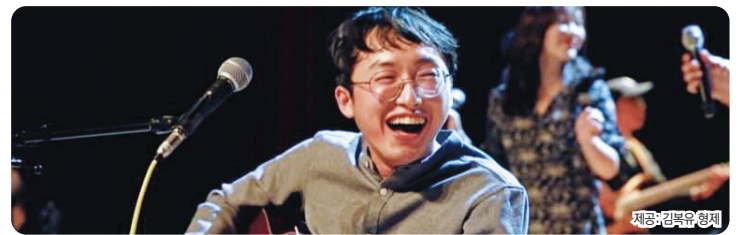
“네. 시험을 볼 때는 제가 악보를

- 제빵도 하셨나요?

“동생 친구의 부모님이 빵집을 운영하셨는데, 부모님이 군대 다녀와서 기술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제빵일을 추천해주셨어요. 우여곡절 끝에 빵집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모든 파티세를 존경해요. 성실하지 않으면 못하죠. 겨울엔 특히 낮이 짧아 어두울 때 출근해서 밤에 퇴근을 해요. 그곳에서 빵을 배우는데, 제가 항상 식빵을 쭉그려뜨렸어요. 제가 일을 잘 못해도 참 좋은 분들이어서 제게 화도 못 내시고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다 음악 공부를 하겠다고 그만두게 됐죠. 25살에 들어간 학교여서 또래도 없고 악금이라도 교정을 밟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학생들은 1교시가 죽음이라고 하는데, 저는 새벽 출근을 하다가 학교에 가니 너무 천국이었어요.”

- 기쁘게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예비하심인 것 같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하신 건 언제부터였나요?

“한 CCM 대회에 참여하게 됐는



“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서  
노래하고  
주님의 인정으로  
채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데,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대상을 받게 되면서 시작됐어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사실 저는 4년 동안 청중이 없었거든요.”

- 그게 무슨 말씀이죠?

“당시 저희 교회는 기도실에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 날이 정기적으로 있었어요. 그때 인도자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가는 거예요. 가장 애매할 때가 1명 남았을 때예요. 차라리 나가면 편하게 찬양할 수 있을텐데, 그분도 미안해서 못나가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돼요. 지금 들어보면 그때는 제가 목소리가 다들 들어지지 않았더군요.”

- 곡을 어떻게 만드시든지도 궁금합니다.

“작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영감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그 말에 정말 동의해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영감에 의해 쓰인 곡은 빨리 써지는 것 같아요. 심사숙고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더군요. 영감이 없이 억지로 쓴 곡은 다음 날 들으면 가사가 오글거린다거나 좋지 않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영감을 주신 곡은 다음날 들었을 때도 ‘내가 어떻게 이런 곡을 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그런 곡은 특별하죠. 기타를 잡을 때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다가 멜로디나 가사가 생각나면 그걸 노래로 불러서 녹음을 했어요. 핸드폰에 그런 녹음 파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작곡을 참 많이 했는데, 공부를 하고 나서는 오히려 작곡 수가 줄었어요. 그때 알게 된 것은 ‘곡을 만드는 데는 꼭 좋은 귀가 필요한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그 영감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더 많은 곡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곡을

만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해야겠네요.

“저는 항상 찬양을 부르고 다녔어요. 제가 강박증 기질이 조금 있는데, 음악에 집착하지 않을 때는 제가 만든 노래도 많이 불렀어요. 제가 예배 인도하며 청중이 모두 떠나갔을 때, 주님은 ‘내 품 안에서 노래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는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의 인정으로만 만족하는 것을 해 보자는 의미였어요. 그렇게 노래를 하다 보니 어느새 큰 방향이 예수께로 향해 있더군요. 나를 드러내기 바쁘고 인정에 목말랐던 저에게 주님은 그 4년 동안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서 노래하고 주님의 인정으로 채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정신을 차려 보니 제가 콘서트장에 있더군요. 하나님이 청중을 주셨죠.”

- 강박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괜찮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싶었어요. ‘은혜로 구원 받는 건 맞지만, 내가 깨끗하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끝도 없었죠. 혼자 살면 혼자만 힘들면 되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이게 아내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더군요. 남들이 봤을 때는 신앙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는 못살겠더군요. 제가 강박을 통해 배운 건 사람의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목사님과 상담을 했는데, 그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청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는 그 사람과 제가 같은 모습이 있더군요. 그때 제가 많이 깨졌어요. ‘아, 내 힘으로 이 죄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구나.’ 그저 ‘내가 죄인입니다.’하며 무릎 꿇는 것 밖에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것만이 나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지금도 십자가로 말미암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는 연습들을 매일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이 임해주시는 공연 전에 강박이 심하게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지인들에게 기도부탁을 하면 방패가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도 저의 강박에 대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시와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분들의 기도 속에서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정말 체험하고 보게 돼요.”

- 공연 이야기도 듣고 싶네요.

“5면에 계속



# 민주콩고, M23 반군 공격으로 수많은 난민 발생

일 년 전, 콩고민주공화국의 니라공고화산의 분출로 만여 명 이상의 이재민이 생겼던 아픔이 채 가 시기도 전에, 최근 M23 반군의 공격으로 고마에서 북쪽으로 35km 떨어진 루추루 지역과 20km 떨어진 키붐바 지역 전체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피난민들이 고마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M23 반군들은 북키부주의 주도인 고마까지 점령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실제 이들은 2012년에 잠시 고마를 점령하면서 정체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콩고인 투치족으로 구성되었으며, 콩고의 정부군과 대치하고, 잔혹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 반군의 공격과 납치·방화·소년병 강제 징집· 끊이지 않는 전쟁

일부는 이들 반군 뒤에 르완다의 조력이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르완다 정부는 이를 전격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사실이 공유되지 않고 있어 어디까지

가 진실이고 소문인지 모호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가슴 아픈 현실은 반군의 공격과 납치, 방화, 소년병 강제 징집 등 끊이지 않는 전쟁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고한 자들이 죽고 하루아침에 정든 집과 고향, 교회, 일터를 떠나 난민이 되었고, 아이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노출되었습니다.

## 추위와 배고픔, 콜레라로 어린 아이들 죽어감

나라공고화산 폭발 후 세워졌던 난민촌이 다시 난민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무니기 교회와 학교 운동장은 난민들로 꽉 차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겨우 비닐 하나에 의지해 추위를 이기고 있습니다. 1평도 안되는 공간에서 5~6명의 가족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평지는 모두 비닐과 천막, 심지어 모기장으로 난민촌이 세워졌고, 끝을 헤아리기 힘든 줄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우기철을 맞은 이곳은 추위와 배고픔, 콜레라로 어린 아이들이 죽어간다는 소식도

접합니다. 너무나 많은 난민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도와야 할지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을 찾는 그때, 어디선가 어느 자매님의 찬송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는 나의 기쁨, 나의 구주, 선택하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찬양을 드리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정부의 아무 대책 없는 무능함입니다. 난민들뿐 아니라 불안한 시민들에게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총체적 난국! 이것이 이곳의 현실입니다. 그 위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 현지 교회들 서로 기도하며 난민들 돕고자 나서

저희 공동체는 먼저 아침 식사를 선포하고 죄악과 싸우고자 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죄악과 욕심들과 전쟁을 선포하고,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난민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



▲ 비닐 하나에 의지해 추위를 이기고 있는 수많은 피난민들. 제공: 윤성운 선교사

길 기도합니다. 이 땅에 여호와를 경외함과 주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로 싸워주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고통을 함께할 방법도 찾으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곳 현지 교회들이 서로 기도하며 옷을 모으고, 양식을 준비하여 난민들을 돕고자 나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주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이나 국제기구에서 식량과 물, 화장실 등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콩고 정부군과 케냐에서 파송한 군인들이 연합하여 M23 반군을 속히 물리치고 이 땅에 평화

가 있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M23 반군은 키붐바 지역에서 북쪽으로 쫓겨나 계속 우리 정부군과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속히 이 내전이 마무리되어 수많은 생명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 땅의 악함과 싸워주시고, 어린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GNPNEWS]

콩고민주공화국=김경희 선교사

## 복음의 능력

### 기도로만 채워지는 능력

사역자가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그의 사역에 신선함과 활력을 불어넣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대화를 통해 신앙에 힘을 불어넣고 영적 시력을 회복하고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일에 실패한 사역자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 기도 골방의 불로 뜨거워지지 못한 사역자의 메시지는 감동이 없는 메마른 설교가 될 것이다. 골방을 거치지 않고 설교단에 선 사람은 청중으로 하여금 경건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없다. 기도를 위해 특별히 구별된 장소가 없는 사람은 기도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빈약한 실적을 보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은밀한 기도와 거룩한 삶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서로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GNPNEWS]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E.M.바운즈)'에서 발췌

• 4면에 이어 Interview

## 열심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작곡



▲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모습. 제공: 김복유 형제

“공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임재는 저에게 생명줄이에요. 공연이 아무리 특별해도 그 감동은 일주일도 가지 않아요. 아무리 음악이 좋아도 3일 지나면 기억이 안나죠. 그러나 성령님이 임해주시면 평생 기억에 남아요. 어떤 공연은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고 나 혼자 쇼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많이 힘이 들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해주시는 때는, 성령님은 성령님의 일을

하시더군요. 그분이 일을 하시면 아무도 못 막아요.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은 예수님이시죠. 제 역할은 회중에게 '당신의 신랑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고 신랑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자리를 탐할 수 없어요. 이것이 너무 기쁨이에요. 세례 요한이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올 때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일 설교 때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 공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예요. 주님의 임재는 저에게 생명줄이에요. ”

군요. 저는 이 일이 너무 행복해요. 이런 공연을 60세가 돼서도 하고 싶어요.”

- 작곡하신 곡 중에 추천해주시고 싶으신 게 있다면요?

“그때그때 달라요. 오늘 추천하고 싶은 노래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곡이에요. 아키아나라는 천재 화가가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어요. 그걸 보는데 예수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당시는 코로나 때여서 세상이 마치

마지막 때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세상은 결국 더욱 타락의 길로 가고, 예수님의 무리들은 하나님 편에 설 텐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꿈에서라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초록빛 바달 닮은 눈동자', '빛나는 옷과 구멍난 손과 내맘은 당신인 걸 알죠.' 등의 가사를 썼어요.”

-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기도제목을 말씀해주세요.

“12월 음원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앨범으로 제작됐으면 좋겠어요. 이 곡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고, 자살하려던 사람이 자살 안했으면 좋겠어요. 제 신앙의 멘토가 언젠가 제 곡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축복을 해주시곤 했거든요. 노래를 들을 때 하나님이 좋아지는 곡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랑이 자랑스러워하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GNPNEWS]

Y.K.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교회 (4)

#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엡 1:17)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심령에 영의 기능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우리의 무너지고 저주받았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게 말씀하신다.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 5:24)

이를 위해서 먼저 믿음을 통해 우리의 영의 기능이 살아야 된다.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허접한 철학이나 무슨 종교나 인간의 수다한 지식의 말을 듣는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주님을 보게 된다.

중세에 타락했던 가톨릭처럼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덮어놓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든 유혹에 눈길이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날 수밖에 없다. 행위 구원과 같은 생각은 바로 교회의 타락이고 썩어서 주저앉은 중세의 암흑시대를 만들어냈던 교회의 비극이었다. 종교 개혁을 따르는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는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렇게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그 영광을 회복하신 주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합했던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신다. 교회는 외형상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연약한 질그릇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과 능력과 축복으로 가득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한다. 세상을 뒤바꾸고 역사를 뒤흔들여 놓은 사람들은 개인의 인품이 대단한 위인이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났던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 교회는 놀라운 주님의 약속,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수준의 일을 주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 절망적인 우리에게 그 일이 그대로 나타나는 비밀은 놀랍게도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있다. 사람들에게 그토록 경멸스럽고 어리석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다.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바로 가장 불가능한 인



일러스트=이예원

생들을 통째로 존재적으로 뒤집어서 변화시킨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인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된다.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지혜이자 가장 완벽한 능력이 바

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다. 이것이 비밀이다. (2018년 7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출간 예정

1년 52주 연속·연쇄·초점집중 기도를 위한 기도정보 모음집

복음의 영광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1  
 복음의 능력 박해를 이긴 교회 2  
 복음의 축복 다음세대를 세우라 3  
 복음의 실제 죄를 진멸하라 4  
 복음과 선교 그 날이 오기까지 5  
 복음의 승리 영적전쟁에 이긴 교회 6

\* 6종으로 구성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는 복음을 주제로 하여, 6가지의 영역을 복음으로 엮어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2023 긴급기도정보**

\* 최근 열방에서 일어난 긴급한 기도제목을 담은 2023 긴급기도정보 5종이 새롭게 발간됐습니다!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와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  
**가격 미정**  
**12월 말 출간 예정**

구입문의 야긴과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복음기도신문 아이폰 앱 공개**

복음기도신문 아이폰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됐습니다.

앱스토어에서 '복음기도신문'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Download on the App Store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이미 사용 중에 있습니다.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신 구주를 모시고 있음을 생각하면 참 기쁩니다. 복되신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믿지 않는 자와 이방인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에 담긴 약속을 볼 때, 가슴이 떨 것 입니다.



출처: James Coleman on Unsplash

나는 믿지 않는 동생 때문에 무척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양께 동생을 인도하려고 14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논쟁에서 동생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동원해서, 동생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며칠 후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베냐민과 같은 형제였습니다. 열일곱 살 때 장티푸스에 걸렸는데, 결국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서 병약했습니다. 나는 동생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동생은 전도가 유망한 아이였습니다. 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성을 끝까지 부인하며, 반박

하고 싶으신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러자 동생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뻐는지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 후 동생과 나는 동역하며 복음을 전하고 여름에 언덕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 년이 지났을 때, 내가 시카고에 간다고 하니 동생도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먼저 나를 보내며, 작별 인사(good bye)를 하기에,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 며칠 후에 우리는 얼굴을 볼 거야. 그러니 나는 그때까지 '잘 있어(good bye)'라고 할게."

그런데 며칠 후에 전보가 왔습니다. '사무엘 소천.' 나는 1000마일 떨어져 있던 동생에게 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때 "마지막 날에 이를 살리리라."라는 말씀만큼 위로가 된 것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은 내 길을 밝혀 주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동생의 얼굴을 볼 때, 말씀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네 동생은 다시 일어나리라." 나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내게 천하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동생을 무덤에 놓을 때,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동생은 다시 일어나리라." 복된 부활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복된 약속입니다! [GNPNEWS]

그런데 며칠 후에 전보가 왔습니다. '사무엘 소천.'

나는 1000마일 떨어져 있던 동생에게 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때 "마지막 날에 이를 살리리라."라는 말씀만큼 위로가 된 것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은 내 길을 밝혀 주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동생의 얼굴을 볼 때, 말씀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네 동생은 다시 일어나리라." 나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내게 천하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동생을 무덤에 놓을 때,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동생은 다시 일어나리라." 복된 부활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복된 약속입니다! [GNPNEWS]

D.L. 무디('참된 길' (룻교회)에서 발췌)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복음의 소리  
1670-3160

워크숍  
지상중계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 전화(1670-3160)가 진행한 '신앙 상담 시에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주제로 열린 상담자 세미나(강사 권서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 신체 질환으로 정신 질환을 겪는 경우

+ 신앙 상담 시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6)

앞선 내용을 종합하자면, 대부분의 많은 정신 질환은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유될 수 있는 생물학적이고 신체적인(뇌)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다면 정신 질환은 어떻게 진단할까. 정신과 질환은 기본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임상 관찰 및 면담을 통해 진단을 내리며, 진단에 도움이 되는 심리검사를 보조적으로 이용한다. 그리고 정신 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 신체 검진을 하게 되는데 이는 앞서 얘기했듯이 신체 질환이 있어도 그로 인해 정신 질환의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몇 달 전부터 안절부절못하고 불안해하며 밤에 잠도 못 자는 상태로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한 여중생 환자는 혈액 검사 결과 갑상선 기능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상선 호르몬 이상을 약물치료를 조절한 이후 환자가 보이던 증상은 모두 사라졌다. 청소년들은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만약 불안해하는 증상에만 집중하여 신체적 질환에 대한 감별 검사를 하지 않고 정신과적인 치료만 했다면 이 환자는 치료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신체검사가 중요하다.

먼저 기본적으로 혈액검사를 통해 내분비 질환 등의 신체적인 질환에 의한 정신 질환 증상인지를 감별해야 한다.

또한 흔히 간질이라고 말하는 뇌전증으로 인해 환청, 망상, 불안 등의 정신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뇌파 검사를 진행한다. <계속> [GNPNEWS]

## 부흥을 위하여

# 北 주민들, 보위부 두려워 탈북 가족이 보낸 돈 안 받아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이에 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최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한 탈북민 가족이 보위부의 감시와 단속에 대

한 두려움 때문에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이 보낸 돈을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데일리NK가 지난 달 28일 전했다. 매체의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돈 이관을 전문으로 하는 한 송금 브로커는 탈북민의 부

탁을 받아 이 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이 씨는 두 번씩이나 돈 전달받기를 강하게 거부했다. 다른 가족도 "지금 쌀 사 먹을 돈도 없을 정도로 생활이 정말 어렵지만, 지난번에 돈을 받은 후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가족(이 씨)이 보위부에 불려가 4개월간 감금돼 있다 풀려났다."며 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씨는 지난 3월 송금 브로커로부터 탈북한 가족이 보낸 돈 1만 5000위안(한화 약 280만 원)을 받았는데, 5분도 채 안 돼 보위원들이 집에 들이닥쳐 돈을 빼앗고 그를 붙잡아 갔다. 이 씨는 보위부에 끌려가 "남조선에서

보내온 돈을 받고 그냥 숨기려고 했느냐."며 강하게 추궁을 받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지난 7월 말에 풀려난 이 씨는 심한 충격에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침체 생활을 했으며, 이 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경제난과 식량난에 굶주림에 시달리면서도 한국에 있는 탈북민이 보낸 돈을 끝내 받지 않았다.

소식통은 보위원들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면 굶주림에 시달리면서도 코앞에까지 가져다 주는 돈을 받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GNPNEWS]



▲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북한 평안북도 국경지역. 출처: 데일리NK 캡처

##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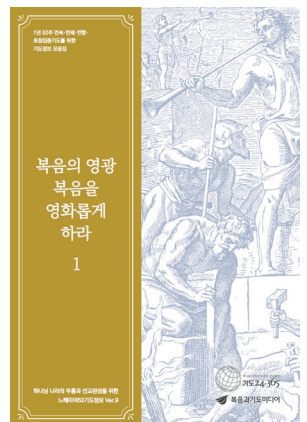
# 느헤미야52 기도정보 ver.9 발간

느헤미야52 기도를 위한 9번째 기도정보책 6종과, '2023 긴급기도정보' 5종이 2022년 12월 말 출간된다.

이번 새롭게 선보일 느헤미야52 기도정보 Ver.9는 복음을 메인 주제로 하여, 6가지의 영역을 복음으로 엮어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1권 복음의 영광,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2권 복음의 능력, 박해를 이긴 교회!' '3권 복음의 축복, 다음세대를 세우라!' '4권 복음의 실제, 죄를 진멸하라!' '5권 복음과 선교, 그 날이 오기까지!(디아스포라-난민과 이주민)' '6권 복음의 승리, 영적전쟁에 이긴 교회!'로 구성됐다.

느헤미야기도정보 Ver.9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최근 열방에서 일어나는 긴급한 기도제목은 담은 '2023 긴급기도정보' 5종도 새롭게 구성됐다.

구입문의 | 야긴과보 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GNPNEWS]



▲ 느헤미야52 기도정보 Ver.9 1권 복음의 영광,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뷰즈 인 아트 Views in Art

베르미어의 <하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요하네스 베르미어(Johannes Vermeer)는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이자 화상(畫商)이었다. 생전에는 이렇다 할 명성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현대에 이르러 그의 작품을 경쟁하듯 수집했던 일본인 컬렉터들에 의해 인기와 명성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베르미어가 그린 이 작품의 제목은 'milkmaid(De Melkmeid)'로, '우유 따르는 하녀'로 번역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우유를 전달하고 말고는 그다지 중요치 않고, 주방 일을 도맡아 하는 하녀의 의미로 볼 수 있다. 당시 유럽에서는 'milkmaid'나 주방에서 일하는 하녀들이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그려지곤 했다. 사람들은 우유 짜는 하녀와 우유 배달부 사이의 낯뜨거운 애정 행각을 음담패설 소재나 가십거리로 나누곤 하였고, 자

연스럽게 하녀와 성적 욕망을 연결한 외설적인 그림도 자주 등장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우유를 따르는 여인을 보는 베르미어의 시각은 매우 놀라울 따름이다. 부엌일을 하는 여인을 이렇게 표현한 화가는 이전에 없었다. 소매를 접어 걷은 단정하고 소박한 옷차림은 정직과 성실을 보여 주며, 우유조차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따르는 모습에서는 숭고한 헌신과 경건울 엿볼 수 있다. 요리 연구가들은 이 장면을 분석하며, 그녀가 만드는 음식이 아마도 먹고 남은 딱딱한 빵 조각에 달콤한 커스터드 크림을 발라 재성한 디저트일 것이라고 했다. 남은 음식으로 디저트를 만들다니, 절약 정신과 재치가 빛을 발한다. 뒤쪽 아래의 상자는 앉아 있을 때 사용하는 발난로

인데, 작가는 꺼진 난로를 의도적으로 그려 넣음으로써, 앉을 새 없이 마음 다해, 맡은 일을 행하는 모습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하녀>는 정직, 성실, 검소, 겸손, 경건이라는 명확한 신앙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러한 사소한 일상의 섬김은 그림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로렌스 형제처럼, "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는 사소한 일상 속 깊은 사랑의 섬김을 만나곤 한다. [GNPNEWS]

이상윤 미술평론가

그림설명: 요하네스 베르미어, <하녀>, 1657-58, 유화, 45.5x41cm, Rijksmuseum 소장,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날마다 새로운 그 식당 이야기

지난 한 달은 거의 매주 여러 날 몸바이를 비우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처럼 몸바이에 돌아오면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반드시 빈민식당으로 달려가곤 해야 했지요. 제가 오면 주에 하루라도 고기를 온 가족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느냐고요.

빈민식사 사역은 세세하게 지정 현금을 지출해야 하기에, 한 번이라도 다녀오면 꼭 관련 글과 보고서를 씁니다. 매번 같은 사역의 무한반복에서 또 새로운 글을 쓸 게 나오기는 할까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저 회계 보고만 해야 하나 싶어 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에게 정성스럽게 만든 만화전도책자를 주고, 배고픈 이에게 먹고 싶은 만큼 먹

이고, 나도 같은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 것, 그 이상의 사역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저 평생 이것만 반복해도 성실히 기록 남기고 보고할 수 있다는 생각이지요. 그리고 염려와는 다르게, 신기하게도 늘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음식을 싸가는 방법이 기억에 납니다. 제가 오면 문 밖에서 보고, 다시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장바구니 같은 가방들을 갖고 돌아오는 고수(?)들이 있습니다. 또 여성들은 전통 복장의 사리천이나 히잡 등을 보파리 삼아 담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할벗다 시피 사는 남자 어린이들은 러닝셔츠의 밑단을 행주치마처럼 넓게 펴서 배꼽이 다 나올 정도로 늘어,



▲ 음식을 받아가는 남자 어린이들. 제공: 원정하 목사

그 여유 공간에 음식을 가득 담아 갑니다. 마치 그 음식들이 이미 뱃속에 들어온 것처럼 재잘대며 줄을 섭니다.

둘째는 몇몇 분들과의 대화입니다. 다들 굴다리 밑에서나 오두막에서나, 제가 언제 오는데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곤 한다는군요. 제가 오지 않아도 자선 식당 앞에서 기다리면 감사커리 정식 한 끼 정도는 먹을 수 있지만, 고기커리를 배부르게 먹고 온 가족들을 위해 싸 갈 수 있는 날이 무작위로 오기에 늘 그 '이벤트 맨'을 기다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간혹 한두 명씩 '너무 좋은 책, 고맙다.'는 이야기들을 들을 땐 정말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차라리 다행입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오면 그날은 인산인해가 될 것이고, 또 도리어 오지 못한 날은 원망을 듣게 될 테니까요. 또 '고인물'들의 잔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 있을 때, 그리고 빈민식사 지정현금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에만 오다 보니 매번 50% 이상 새로운 사람들이 있는 잔치를 열게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열심히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GNPNEWS]

원정하 목사(본지 통신원)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 빈민식당. 제공: 원정하 목사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2. 11. 9 ~ 11. 30 (가나다 순)

개인

강종채 고민수 권정숙 김경선 김선례 김선희 김수미 김숙자 김애심 김영순 김원숙 김혜신 박성규 박신희 송미희 신혜경 이은주 이장원 이주선 이지수 정금자 정요한 조명숙 차익수 차인순 최근희 하은숙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고현교회 기도24365본부 김화제일교회 마중물교회 목자교회 반석중앙교회 복음가득한교회 새순교회 썬 시흥교회 신한테크 안양그루터기교회 열매교회 오예그교회 은혜신일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주소망교회 참종양터라교회 처음사랑교회 풀뿌리산곡교회 함안순복음교회 헤브론원형학교 험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